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20장 율법조문과 영

『산상설교』 상권 제20장, 인쇄 266~278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21~22

> ❓ 나쁜 짓만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걸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뭘 말씀하시려던 걸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21절이 앞의 17~20절을 넓혀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다음 21~48절의 여섯 진술을 하나씩 다루기 전에, 여섯 진술에 공통으로 쓰인 형식부터 살핀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너희가 들었으나”는 모세 율법 자체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해석을 가리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율법을 주신 분만 가질 수 있는 신적 권위의 선언이다. 이 바탕 위에서 그는 여섯 실례를 꿰는 다섯 원칙을 뽑아낸다. 문자보다 영, 행동만이 아닌 동기, 금지만이 아닌 의에 대한 사랑, 속박이 아닌 자유로운 성장, 그리고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는 원칙이다. 설교는 신앙의 훈련조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영혼에 가장 큰 위험이 된다는 경고로 끝난다.

📜 절별 정리

📜 1. 21절은 어디에 서 있는가 — 여섯 진술을 하나로 보라

로이드 존스는 21절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 단락과의 관계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산상설교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성격(팔복)을 그리고, 이어서 그 기능과 목적(소금과 빛)을 말한 뒤, 율법과의 관계를 다룬다. 예수님이 율법 문제를

선언을 넓혀 율법의 바른 해석을 제시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거짓 가르침과 대조하신다. 21~48절에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에 대한 여섯 진술이 같은 형식으로 나온다. 그는 이 진술들을 따로 떼어 세부에 몰두하면 주님의 큰 원칙을 놓친다고 경고한다. 주님은 원칙 하나를 세우고 그 실례를 여섯 번 드신 것이므로, 원칙부터 파악해야 한다.

1. 21절은 17~20절의 확대 설명이다
2. 성격 → 기능 → 율법과의 관계 순서다
3. 청중이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던 유대인이었다
4. 여섯 진술은 한 원칙의 여섯 실례다
5. 세부에 빠지면 큰 원칙을 놓친다

> **마태복음 5:17~20**
>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를 선언한 단락으로, 21절이 이를 확대한다
>
>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 들어가지 못하리라

> **마태복음 5:20**
> 서기관·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요구하며 21절~7장 전체의 주제가 된다
>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마태복음 5:21**
> 첫째 진술(살인) — 이 설교의 본문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27

둘째 진술(간음) — 같은 형식이 반복됨을 보여준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31

셋째 진술(이혼 증서)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마태복음 5:33

넷째 진술(맹세)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38

다섯째 진술(눈은 눈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43

여섯째 진술(이웃 사랑과 원수 미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2. "너희가 들었으나" — 율법인가, 율법에 대한 해석인가

로이드 존스는 먼저 주님이 쓰신 형식을 살핀다. 영어 성경에는 “옛 사람에 의하여

모세 율법을 가리키신 것이 되고, 'by'를 택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가리키신 것이 된다. 그는 둘째 견해를 받아들인다. 서기관은 조상들이 내린 결정, 곧 전통에 정통한 권위자였다. 주님이 “너희가 읽었으나”가 아니라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신 점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것을 종교개혁 이전 상황에 견준다. 당시 백성은 라틴어 성경을 알아듣지 못해 사제의 해석에 전적으로 기댔고, 로마 가톨릭은 성례와 사제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전통으로 단순한 복음을 흐렸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인도 아람어를 쓰게 되어 히브리어 율법을 직접 읽지 못했고, 회당에서 듣는 서기관의 설명에 율법 지식 전부를 의존했다. 그 결과 그들이 율법이라 믿은 것은 수백 년 동안 덧붙은 해석과 전통이었고,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지 가려낼 수 없게 되었다. 주님의 목적은 이렇게 흐려진 모세 율법을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데 있었다.

1. by냐 to냐는 언어학으로 판정할 수 없다
2. 문맥상 서기관·바리새인의 해석을 가리킨다
3. “읽었으나”가 아니라 “들었으나”다
4. 포로 이후 백성은 히브리어 율법을 못 읽었다
5. 종교개혁 이전의 라틴어 성경 상황과 닮았다

> **마태복음 5:21**
> “옛 사람에게 말한바…너희가 들었으나” — 해석 논쟁의 대상이 되는 형식
>
>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마태복음 5:33**
> 같은 “옛 사람에게 말한바” 형식이 반복되어 여섯 진술을 하나로 묶는다
>
>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마태복음 5:20**
> 주님이 바로잡으려는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임을 밝힌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3.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 율법을 주신 분의 권위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진술 가운데 하나로 본다. 앞의 형식을 모세 율법으로 읽으면, 주님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다르게 말한다”며 율법을 고치신 셈이 된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이 일점일획까지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신다. 더 나아가 이 말씀에는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가 바로 나이므로 율법을 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나뿐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분은 서기관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결정적인 무게를 지닌다. 동시에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를 새 율법이나 상세한 윤리 법전으로 보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주님은 새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요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시다. 그분을 머리로 한 백성은 특정한 성격을 갖게 되고, 그 성격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 여섯 진술은 그 행동의 실례다. “간음만 안 하면 나는 괜찮다”고 말한다면 요점을 놓친 것이다. 특정 실례를 율법으로 바꾸지 말고 원칙을 붙들어야 한다.

1. 주님은 모세를 고치지 않고 해석하신다
2. 율법을 주신 분만이 참 해석자다
3. 산상설교는 새 윤리 법전이 아니다
4. 새 백성의 성격과 행동을 그린 실례다
5. 실례를 규칙으로 바꾸지 말고 원칙을 잡으라

마태복음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 신적 권위의 선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마태복음 5:18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주님이 율법을 정정하신 것일 수 없다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7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앞 단락의 전제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29

“많은 형제 중 맏아들” — 새 백성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설교자가 쓴 표현의 출처)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3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신적 권위로 말씀하신다(설교자가 쓴 표현의 출처)

>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산상설교는 윤리 법전이 아닙니다.”

📜 4. 첫째·둘째 원칙 — 문자보다 영, 행동만이 아닌 마음

여섯 실례를 꿰는 첫째 원칙은 율법의 문자만이 아니라 정신(영)이 중요하다는

쏠리기 쉽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스라엘이 문자에만 매달려 영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살인을 예로 들면, 바리새인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겼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동료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데 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원칙이 산상설교 자체에도 적용된다고 경고한다. 맹세에 대한 퀘이커 교도의 태도처럼, 또 다른 뺨을 돌려대라거나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문자대로만 적용하는 사람들처럼, 문자에 묶이면 주님의 가르침이 우스꽝스러워진다. 다만 문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영을 앞세우고 영에 비추어 문자를 해석하라는 뜻이다. 둘째 원칙은 첫째 원칙을 달리 말한 것으로, 율법 준수를 행동으로만 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행동만큼 그 행동을 일으키는 생각과 동기에도 관심을 두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내적 상태를 보신다.

1. 율법은 생명을 주도록 주어졌다
2. 살인하지 않아도 미움이 있으면 어긴 것이다
3. 산상설교도 문자주의로 읽으면 왜곡된다
4. 문자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해석하라
5. 하나님은 행동과 함께 동기를 보신다

> **고린도후서 3:6**
>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 첫째 원칙의 기둥
>
>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 **마태복음 5:22**
> 살인 금지가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까지 다룬다는 실례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15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며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을 미워하신다 — 둘째 원칙의 근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19

악한 생각과 살인·간음이 마음에서 나온다(설교자가 장절 없이 가리킨 주님의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중요한 것은 영이지 문자가 아닙니다."

📜 5. 셋째·넷째 원칙 — 금지를 넘어 의를 사랑하고,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

셋째 원칙은 율법을 부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옳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아가 옳은 것을 사랑하는 데 있다. 유대인의 율법관은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금지 목록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악을 피할 뿐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로이드 존스는 이 문제가 당시 교회에도 있다고 지적한다. 성결과 성화를 기계적으로 생각해, 특정한 일만 하지 않으면 질투와 시기와 교만이 가득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넷째 원칙은 율법의 목적이 우리를 억압적 규칙에 묶어 두는 데 있지 않고, 영적 성품이 자유롭게 자라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신약의 윤리를 편협한 속박으로 느낀다면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1. 율법의 목적은 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2. 금지 목록 신앙은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
3. 죄 안 지어도 교만·시기가 있으면 문제다
4.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5.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자유다

> **마태복음 5:6**
> 의에 주리고 목마름 — 율법의 긍정적 목적을 보여준다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요한일서 5:3**
> “그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 넷째 원칙의 근거
>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 **에베소서 4:13**
>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 — 성화가 성장이라는 그림(설교자가 쓴 표현의 출처)
>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 **로마서 8:21**
>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 복음이 지향하는 목적지(설교자가 쓴 표현의 출처)
>
>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섯째 원칙은 하나님의 법과 성경의 윤리적 교훈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다. 바리새인은 회심 전의 바울처럼 십계명을 벽에 걸어두고 “이런 죄는 짓지 않았으니 나는 의롭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잘 되어 간다”고 여겼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철저히 거짓된 율법관이다. 로이드 존스가 제시하는 시금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기를 돌아볼 때 “살인이나 간음을 했는가”를 묻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으뜸이셨는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는가”를 물어야 한다. 곧 규칙 목록이 아니라 살아 계신 인격의 빛 앞에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다. 산상설교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로 이끄는 매체다. 로이드 존스는 마지막으로 신앙의 훈련을 예로 든다. 훈련은 유익하고 꼭 필요하지만, 훈련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영혼에 가장 큰 위험이 된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거나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담배나 술이나 노름을 일정 기간 끊어도 그동안 심령의 가난과 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는 공중 예배와 자신의 설교도 같은 위험 아래 있다고 고백한다. 설교 한 편을 해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설교는 헛되고 설교자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이 된다. 설교는 고린도후서 3:6을 다시 인용하며 끝난다(번역문의 마지막 인용은 문장이 어그러져 있으나 이 구절의 뜻으로 읽는다).

1.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2. 시금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3. 규칙이 아니라 인격 앞에서 자신을 살핀다
4. 훈련이 목적이 되면 영혼에 가장 위험하다
5. 설교와 예배도 같은 위험 아래 있다

> **고린도후서 3:6**
> 설교를 맺는 결론 — 조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
>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훈련의 열매는 심령의 가난이 깊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6

훈련의 열매는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커지는 것이어야 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20

바리새인의 법전식 의를 넘어서는 의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율법의 조문과 영

율법을 글자로 지키는 겉모습(조문)과,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뜻하신 속마음과 목적(영)을 구별하는 말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조상들의 전통과 해석에 따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규칙을 지키는 데서 얻는다고 여긴 의다.

전통

서기관들이 조상들의 결정을 쌓아 율법에 덧붙인 해석 체계로, 결국 율법 자체와 구별이 안 될 만큼 커졌다.

그리스도의 인격론(본문의 '인론')

성화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자라 가는 과정이다.

율법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다.

퀘이커 교도
17세기 영국에서 생긴 기독교 종파로, 맹세 금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법정 선서 같은 모든 맹세를 거부했다.

사순절
부활절 전 약 40일 동안 금식과 회개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교회 절기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옛 사람에게 말한바...너희가 들었으나”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해석을 가리키며, 주님은 율법을 고치지 않고 바로 해석하신다.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고, 산상설교는 새 윤리 법전이 아니라 새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례다.
- 여섯 실례를 꿰는 원칙은 문자보다 영, 행동과 함께 동기, 금지를 넘어 의에 대한 사랑, 속박이 아닌 자유로운 성장이다.
- 모든 계명과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영혼을 죽이는 율법조문이 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